

화학산업 체감경기 전반적 상승세

한국은행, 화학제품 92에 고무·플라스틱 97 ... 석유정제는 100 유지

제조업 체감경기가 3개월 연속 호전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10월 12-21일 2425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10월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의 업황 BSI는 9월보다 5p 상승한 83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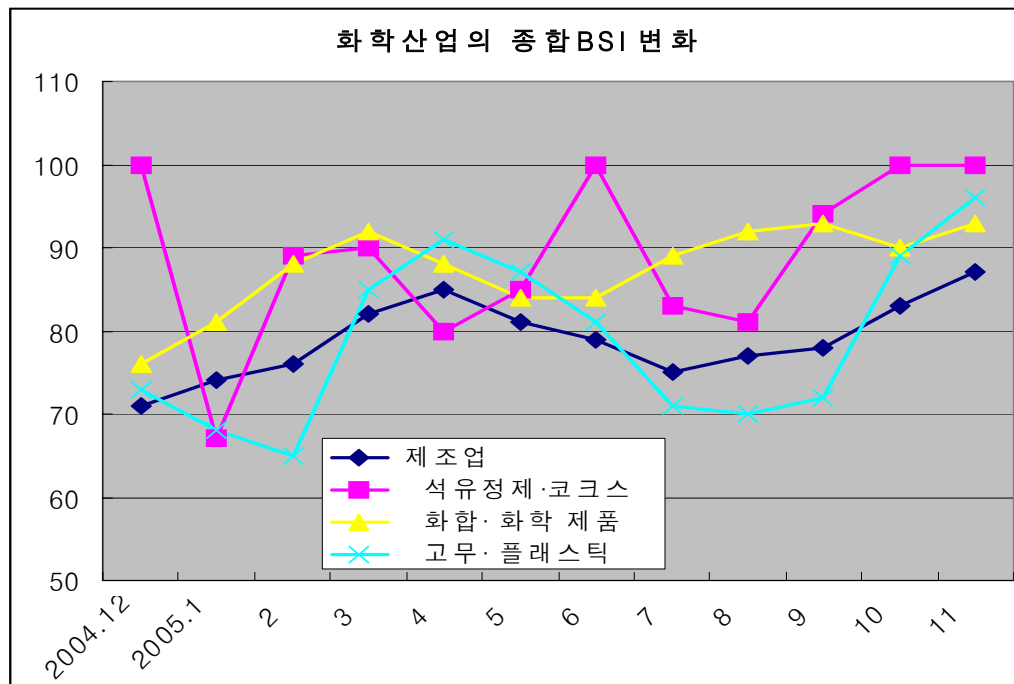
업황 BSI는 7월 75에서 8월 77로 상승세로 전환된 후 9월 78, 10월 83으로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기준치인 100에 미달해 아직 본격적인 경기회복 국면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화학산업에서는 석유정제·코크스가 100을 유지했고, 화학제품은 90에서 92로 2p, 고무·플라스틱은 90에서 97로 7p 상승했다.

대기업 업황 BSI는 90으로 3개월째 상승세를 나타냈으며 중소기업은 79로 6p 뛰어 올랐다. 또 수출기업 업황 BSI는 6p 오른 83, 내수기업은 4p 상승한 83을 기록했다.

제조업 전체의 11월 업황전망 BSI는 10월과 동일한 87로 나타났다.



매출실적 BSI도 6월부터 4개월 연속 90을 나타냈으나 9월에는 6p 상승한 96를 기록했고, 가동률 BSI는 96으로 3p 오르면서 역시 3개월째 상승세를 지속했다.

채산성 BSI도 3p 상승해 87을 나타냈다.

한편, 경영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 제조기업의 28.0%가 내수부진을 꼽았으며, 원자재 가격 상승(14.5%)과 경쟁심화(9.5%), 불확실한 경제상황(8.5%)이 뒤를 이었다.

경쟁심화는 7.8%에서 9.5%로, 자금부족은 5.6%에서 7.0%로 상승했으나 내수부진은 29.9%에서 28.0%로, 환율 애로는 6.5%에서 4.9%로 하락했다.

<화학저널 2005/10/31>